

## 오피니언

## 월/요/광/장

김필식



나 떠난 후 묘비명(墓碑銘)에는 어떤 글이 새겨질까. 죽은 나는 말없이 누워있을 테지만 묘비명은 두고두고 내 곁에서 나를 찾은 이들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넬 것이다. 그들에게 뭐라고 인사할 것인가, 나는 요즘 그 고민을 하고 있다.

햇살 찢어낸 여름날 생뚱맞게 웬 암울한 소리나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최근 나의 화두는 행복하게 죽는 것이다. ‘어떻게 죽느냐’는 문제는 결국 ‘어떻게 사느냐’는 문제로 귀결된다. 삶과 죽음은 반대말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이다.

묘비명은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짧은 기록이자 죽은 자가 산 자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치관이 응축되어 있기에 강한 여운을 남긴다.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기라’며 스스로 생을 마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비명은 ‘대통령 노무현’ 여성 글자다. 묵하게 권위적이지 않으면서도 숙연하게 가슴 속에 각인되는 글이다. 김수환 추기경의 묘비명은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이 없어라’이다. 생전 고인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는 성경 구절

이다. 위트와 해학이 넘치는 묘비명도 많다. 걸레스님을 자처하며 기행을 반복했던 종교스님은 마지막 전시회 주제대로 ‘괜히 왔다 간다’고 묘비명을 썼다. 헤밍웨이의 묘비명은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해’. 극작

## 당신의 묘비명은 무엇입니까

가버나드 쇼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고 묘비명을 남겼다. 익살스럽지만 기막힌 음미해 보면 울림이 느껴진다.

얼마 전 어떤 분이 신문칼럼에 ‘다쓰고 간다. 후회 없다’고 묘비명을 남기겠노라 쓴 글을 읽고, 저런 생각을 가지면 참 아쉽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웃음을 얹었다. 하긴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라

지 않던가. 인생이란 빈순으로 왔다가 빈순으로 가는 것이라는 소박한 진실이 다시 한 번 떠올랐다. 갓난아기의 배내웃과 죽은 이의 수의에 호주머니가 없는 것도 그런 연유 아니겠는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세상 떠날 때 지니는 것이라고는 똑같이 저승길 노자 한 달이 전부인 것을, 쓰고 남은 것을 가지고 있게 베풀지 못하고, 더 갖기 위해 남의 불행에 눈 질끈 감아버리는 일은 얼마나 어리석고 비극적인가 말이다.

‘남장이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작가 조세희 씨는 말한다. “총탄이나 경찰 곤봉이나 주먹만이 폭력이 아니라 우리의 도시 한 귀퉁이에서 젖먹이 아이들이 굽주리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도 폭력이다”고. 30년 전에 출간된 이 책이 꾸준히 사랑받으며 100쇄를 돌파했을 때 작가는 영광스

번을 했고, 기부금은 얼마나 냈으며, 불우이웃을 위해 어떤 봉사를 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질문은 들어보기 힘들다.

어쩌면 우리는 지나치게 성공만을 위해 살아온 나머지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진 것은 아닌지 자성하게 된다.

평생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떠난 노점상 할머니, 불우이웃에 쏘아올리며 이름없이 돈을 두고 가는 기부자들을 보면 사람들은 감동한다. 부모 없이 서럽게 사는 아이들이나 고단하게 늙어가는 노인들,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 가는데 돈이 없어 우는 사람들을 보면, 보는 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난다. 도와주고 싶어진다. 정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에 여유 생기면 도와야지 다짐하며 돌아서고 만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다음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방치하는 사이에 우리 이웃은 인생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인간이란, 가치 있는 인생을 지향하면서도 오늘 당장 실천하지 못하고 내내 미루다가 결국 후회하게 되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오늘 하루에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담겨있는 건지도 모른는데 말이다. 버나드 쇼처럼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라고 묘비명을 새기지 않도록 자그마한 것이라도 실천해보자고 다짐해본다. <동신대학교 이사장>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설

## 정부, 무안 한·중산단 개발 외면 이유 뭔가

무안군이 한·중 합작으로 추진해온 ‘무안 한·중산단지(한중 산단) 조성 사업’이 정부의 외면으로 자칫 ‘을 스톱’ 될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한다. 정부가 기조자치단체가 어렵사리 설치시킨 수조 원 규모의 외자유치 사업을 방관하는 것은 정부로서의 역할을 저버리는 행위로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한·중 산단 개발은 중국 충칭시가 사업비의 51%, 무안군 등 한국 측이 49%를 투자해 무안군 1천 773만㎡ 일대에 산업단지·차이나타운 등을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중국은 이 프로젝트에 최소 3조 7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중국 측은 토지 개발에 필요한 초기 사업비(약 8천억원)의 부담비율을 당초 51%에서 70%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으나 빨리 사업을 진행하라고 제의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당초 투자에 참여 키로 했던 두산중공업 등 국내 기업들이 밸을 뺀데다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추진할 수가 없어졌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부는 새겨야 한다.

정부는 국가 정책 차원에서 중국의 투자를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 러시아 일방통보에 좌우되는 나로호 발사

지난 11일로 예정됐던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I) 발사가 또다시 연기됐다. 로켓 결함과 같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측정장치의 오류 때문에 늦춰진 것이라니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나로호 발사는 처음이 아니다. 러시아와의 기술협력 협정과 발사대 시스템부품 공급 계약, 1단 로켓연소시험의 기술적 문제 등으로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발사를 연기됐다. 발사 연기가 계속되면서 관광 특수를 기대했던 자체체나 관련 업계의 실망감이 고조되고 있다.

시소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우주개발에서 일정 연기는 흔히 있는 일이다. 얼마 전 발사된 미국 우주왕복선 앤데버호도 기상악화와 연료공급장치 이상 등의 이유로 여섯 차례나 연기됐다.

문제는 발사연기 등 모든 과정이 러시아의 일방 통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 측의 ‘팩스 통보’에 따라

발사와 연기를 되풀이해 왔다. 발사 연기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다.

나로호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개발비만 5천 25억원이 들어가 초대형 연구개발사업이다. 우리가 우주개발 파트너로 러시아를 선택한 것은 미국과 유럽에 비해 발사비용이 저렴하고 무엇보다 기술제공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로호 1단 로켓을 러시아와 공동 개발했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실제 핵심 기술이전은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단 로켓은 그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이용할 수 있어 국제적으로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 러시아 측이 기술 이전을 미루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제부터라도 돈이 더 들고 시간이 더 걸린다 해도 1단 로켓을 통해 공동으로 우주개발을 이끌어야 한다.

시소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우주개발에서 일정 연기는 흔히 있는 일이다. 얼마 전 발사된 미국 우주왕복선 앤데버호도 기상악화와 연료공급장치 이상 등의 이유로 여섯 차례나 연기됐다. 문제는 발사연기 등 모든 과정이 러시아의 일방 통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 측의 ‘팩스 통보’에 따라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기고



배양자

지난 2006년 10월 2일 ‘2010 F1 월드 챔피언십 코리아 그랑프리’ 유치발표가 있은지 3년여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잠깐인 듯한 시간속에 내년도 개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낙후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전남에서, 전세계 모터스포츠의 최고봉인 F1대회의 서막을 쏘아올릴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안정적인 대회 개최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주도의 추진체계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

한 안정처와 같은 기분이 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 일에 다양한 경험과 재능을 갖춘 우리 지역 자원봉사자의 힘이 필요하다.

얼마 전 박준영 도지사가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에서 열린 ‘사랑의 집짓기’(해비타트) 행사에 참여했을 때 현황을 설명하던 한 관계자가 의미 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울소재 K대, POSCO지원장학생 등 수도권 대학생들이 주축을 이루

## F1 성공 개최 자원봉사가 이끈다

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F1대회가 서남해안의 개발을 촉진하고 인구유입과 투자유치,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임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이처럼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획력과 더불어 대회개최에 따른 국내외 주변여건이 성숙되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F1을 통해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로 발전한 BMW는 친환경 기술에 집중하기 위한 경영전략을 이유로,

HONDA는 비행기 제조계획을 축소하는 등 비용절감을 이유로 F1경기애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로 인해 FIA(국제 자동차연맹)는 세계경기불황의 시기에 한 팀이 사용할 예산상한제(1년 4천만 파운드 이하, 약 800억 원)를 도입하여 경비절감에 돌입한 상태다. 생각보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돌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여건이 다소 충분치 못하다면 이를 보완할 방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우선, F1경기에 관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외국인이다. 물설고 낯선 곳에 오는 그들에게 편안

다는 것이다. 그들은 꽤 많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 가며 자원봉사에 임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집없는 서민에게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에 동참하고 경험을 나누는 속 깊은 의미도 있겠지만, 요즘처럼 취업경쟁의 실상을 판에 그들은 경쟁력 하나를 더 얻어 가지 않았을까? 그 관계자는 “그런데 지방에서는 참여가 다소 부족하다”며 말꼬리를 흘렸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우리 지역의 J 대도 합류했다는 말에 안도감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래도 수도권에 비하면 지방에는 그와 같은 선택의 기회나 정보 또한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에 치러지는 F1국제자동차 경기대회는 홍보과정을 통해 잘 알려져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만큼 직능별·기능별 자원봉사 영역에 있는 대학생과 전문가 등 지역인재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축제로 승화시켜야 한다. 마침 전남도가 F1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통역 등 다양한 분야에 자원봉사 활용계획을 마련중에 있으니 뜻 있는 많은 도민들의 참여를 기대해 본다.

<전남도 종합민원실장>

## 아이들에 학습효과 높은 ‘현장교육’ 기회 늘렸으면

## 기고



김종원

사교육에 관한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바뀔 때마다 혹은 한 정부 안에서도 사교육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제시해 왔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현 정부도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과 경쟁에 의한 공교육의 내실화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 대책 안으로는 첫째,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이다. 현행 교원 평가제도가 승진에 조절이 맞추어져 있

##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보며

는 어 능력개발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새로운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도입하여 교사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물론 교사들의 실력 향상이라는 목표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먼저 교사들의 학습연구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들의 충분한 학습 연구를 위해 상급기관에서 하달되는 각종 공문을 비롯, 수업 이외의 업무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협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입시제도 개선을 통한 입시부담 경감 대책이다. 대입전형을 다양화하고 특목과 입시제도를 학교 교과과정 중심으로 개선하여 그동안 경쟁과열과 그에 따른 사교육 유발 요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2012년 수능부터 시험 과목을 5개로 축소하겠다는 개편안도 내놓았다.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과 운영이 대학입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시험 과목의 축소는 국·영·수 중심으로의 교과 운영을 더욱 부추기게 되고 이것은 국·영·수 중심의 사교육 심화로 이어질 것이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다. 그 어떤 성급한 정책도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시간을 가지고 각계 각층간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다. 그 어떤 성급한 정책도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시간을 가지고 각계 각층간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

<죽호학원 법인 사무국장·성무고 운영원장>

지적이 많다. 따라서 학부모와 학생이 학원을 찾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 ‘학원이 학교보다 더 잘 가르친다’는 인식의 전환을 위한 대책, 즉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사의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아무리 개혁적인 교육 정책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기 어렵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 및 교과부의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교사가 교단을 지킬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하며, 교육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 한 과제이다.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개선은 필요하나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교사의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적인 지도, 학생들의 자율적인 노력 그리고 학부모의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와 지원이 있어야 학교 교육이 보다 나은 공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다. 그 어떤 성급한 정책도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시간을 가지고 각계 각층간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바다를 무대로 원영(遠泳)을 개척하며 제 2

의 인생을 열었다. 1980년 8월 11일 60km의 대한해협을 13시간 16분 10초 만에 건넜다. 5·18 광주항쟁 직후였지만

금남로에서 열린 시민항쟁대회의 열기

## 無等鼓

그는 천생 ‘불개’였다. 뱃자리가 해남(海南)인 것도 그렇고 50년 이상 물과 씨름하다 다시 돌아와 물한 곳이 계곡(溪谷)만 법곡(法谷)이라는 점도 우연은 아닌 듯하다. 수영장에 머물지 않고 바닷길도 수차례 걸었다. ‘한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녔다. 그래서 서일까. 그는 ‘물이 떠래 낮설다’고 했다.

지난 4일 타계한 한 국수영의 영웅 조오련. 1970년 방콕아시안게임 자유형 400m와 1,500m에서 한국 스포츠 사상 첫 아시안게임 2관왕에 올랐고 4년 뒤 테헤란아시안게임에서 2관왕 2연패를 달성했다. 이후 수영 대부분 종목에서 통산 50개의 한국신기록을 세우고 1978년 은퇴했다.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바다를 무대로 원영(遠泳)을 개척하며 제 2의 인생을 열었다. 1980년 8월 11일 60km의 대한해협을 13시간 16분 10초 만에 건넜다. 5·18 광주항쟁 직후였지만

금남로에서 열린 시민항쟁대회의 열기

<경후식 사회1부장 who@kwangju.co.kr>

## 光州日報